

소설가 이화경씨 현진건문학상 수상

“모란’ 견고한 구성·시적 문체 돋보여”

광주 출신 소설가 이화경(50)씨가 제6회 현진건문학상(상금 1000만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단편 소설 ‘모란’.



현진건문학상은 1920년대 사실주의 한국소설의 대표적 작가인 빙허 현진건(1900~1943)의 문학세계를 조명하고 문학적 업적을 계승하기 위해 현진건문학상운영위원회와 대구 소설가협회가 제정했다.

수상작 ‘모란’은 아버지가 극단적인 자살을 한 배경을 찾아나선 딸의 이야기를 그린 단편으로 이 작가 특유의 섬세한 감각과 정지한 구성이 빛을 발하는 작품이다.

심사위원회는 “견고한 구성과 간결하면서 시적인 문체가 돋보이며 현진건 소설의 사실주의적 문학세계를 이어갈 작품”이라며 수상작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 작가는 1997년 계간지 ‘세계의 문학’에 단편 ‘등근잎 나팔꽃’으로 등단했으며 ‘수화’, ‘나비를 태우는 강’, ‘꾼’ 등의 소설집과 ‘버지니아 울프와 밤을 새다’ ‘열애를 읽다’ 등의 인문교양서를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

앨리스의 시계토끼, 심봉사 만나다

국악그룹 ‘아이리아’ 소리극... 15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앨리스를 찾아다니던 시계토끼가 심봉사를 만났다?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가 ‘쥬크박스 명랑 쾌활 소리극-이상한 나라의 심봉사’ 무대에 올린다. 15일 오후 5시 빛고을시민문화관.



판소리 ‘수궁가’와 ‘심청가’를 재구성한 이번 작품은 관객들이 판소리와 친근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통해 심청가와 수궁가의 눈대목을 들려준다.

심청가 중 ‘중타령’을 시작으로 ‘심청이 뱃사람을 따라가는 대목’, ‘범피종류’, ‘뺨덕이 심술대목’ 등이 공연되며 수궁가 중에서는 ‘화공을 불러라’, ‘토끼 배 가르는 대목’이 공연된다.

서편제보성소리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윤종호씨를 비롯해 2014 전북 브랜딩 공연 ‘춘향’의 주인공 기태희, 김산옥, 윤해문누리씨가 소리를 맡았다. 작품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는 시계토끼로 신명 단원 김은숙씨가 열연한다.

광주문화재단의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된 아이리아는 전북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에 초청단체로 참여하였으며, 서울 ‘꿈의숲 아트센터’와 교류 공연, 국악과 DJ&서플댄스가 어우러진 문화만찬 ‘브랜딩 & 뉴이리랑’ 공연을 앞두고 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공연이 끝나고 관객이 관람료를 지불하는 감동후불제로 진행된다. 문의 062-252-30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전당 인근 미술관 건립 초석 다지겠다”

조진호 신임 광주시립미술관장

대형 전시 등 마련...시민에 다가가는 미술관 될 것

“보고 싶은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작가들이 찾아 오는 미술관을 만들겠다. 기회가 되면 광주에서 볼 수 없는 대형 전시도 열고 싶다.”

12월 만난 조진호(62) 신임 광주시립미술관장은 미술관의 가장 큰 역할은 시민들이 보고 싶은 전시를 만들고, 지역의 청년 작가들을 키워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하다. 더 이상 찾아오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이 먼저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차별화된 콘텐츠로 시민들에게 어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에는 미술관의 교육적 역할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하고,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만들 계획이다. 최근 공적인 학예과장 자리 등 조직에 변화를 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물론 균형감 있는 전시를 보여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 관장은 지역 청년 작가 양성 프로젝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능력 있는 청년 작가들을 발굴, 그들의 히스토리를 만들어 주고 해외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얘기다.

해외 레지던시를 확대하고, 2년째 중단 상태에 있는 국내 레지던시 프로그램(옛 양산동 창작스튜디오)도 다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예산으로는 당장 북경창작스튜디오를 확대하기는 어렵다. 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미술 시장에서 중요한 거점이다. 국내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다시 추진해 장기적으로는 중국 등 해외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조 관장은 지역과의 소통도 강조했다. 그는 취임 직후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

등을 돌며 청년 작가와 중견, 원로, 여성 미술인들을 만났다.

“미술관 학예사들은 더 이상 미술관에 머물지 말고, 전시회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작가들을 만나고 보다 폭넓은 자료를 모아야 한다. 미술관의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아카이브 구축이다.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야만 광주만의 미술을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그는 광주시립미술관과 학예사들의 전시 기획력과 노하우를 높게 평가했다. 조 관장은 전시 기획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예사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회의와 논의를 거쳐 완성도 높은 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밖에서 광주시립미술관을 봤을 때는 경직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안에서 보니 타지역 미술관들이 22년 동안 쌓인 광주시립미술관의 전시기술을 배워가고 있다. 균형감 있는 좋은 전시들이 그동안 시민들에게 크게 호감을 주지 못한 것은 아쉽다. 블록버스트 전시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미술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제약적인 요건이 있다. 대형 기획사 등에서 제안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12월 초까지 미술관 운영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는 조 관장은 장기적으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새로운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로운 미술관이 건립되면 지금의 미술관은 근대미술과 어린이 관련 전시, 프로그램 운영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광주시장과 상의해볼 생각이다. 도심에 새로운 미술관이 만들어지면 중외공인 문화벨트와 함께 대인시장, 예술의 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미술관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문화벨트가 형성될 것이다. 오랜 시간을 두고 다양한 여건을 수렴할 예정이



다. 임기 내에 새로운 미술관 건립에 대한 초석을 만들겠다.”

그동안 지역에서 꾸준히 제기되어온 소장품 구입 문제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광주시 조례상 소장품 구입 심의위원 선임 규정이 모호하다. 이를 수정할 계획이다. 작가들 사이에서 학예사가 친분에 의해 작품을 구입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검토해본 결과 사실은 아니다. 학예사

들이 보다 많은 작가들을 검토해서 신중하게 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광양 출신인 조 관장은 조선대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대동미술상(2008), 오월어머니상(2012) 등을 수상했다. 광주미술인협회 회장, 광주미술상운영위원회 상임부회장, 광주·전남수채화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철학·미디어... ‘광주시민인문학’ 강좌

12월 5일까지 문학 등 다양

리얼리티(실현) 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이 17기 정기 강좌를 연다. 인문적 통찰과 미학적 시각을 통해 자율적이고 주체적 인간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은 다양한 형태의 강좌를 통해 시민들을 만나오고 있다.

오는 12월 5일(오후 7시30분~9시30분)까지 전남대 제1학생회관 200강의실(수요일은 카페 드림탑 광천점)에서 4강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서는 국문학, 철학, 일문학,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가 다뤄진다.

월요일에는 심영의(국문학) 박사가 ‘버선에 감춰진 조선시대 여자들의 성(性), 정

철’을 주제로 조선 여성들의 성 의식과 시대적 통제를 다룬다. 화요일은 박성천(광주일보 기자) 박사가 ‘미디어와 인문학적 미학’에 관해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수요일은 ‘카페 인문학’ 컨셉으로 카페 드림탑에서 수요이론 스타디움을 한다. ‘베르그송, 결정론이 아닌 인간의 자유의 존재성을 말하다’를 주제로 토론을 겸한 강좌가 이루어진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명혜영(일문학) 박사가 각각 ‘도덕과 이성은 관습과 전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프롤레타리아 문학, 우리는 지금 계몽선 안에 있다’를 주제로 강의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오후 2시~4시)은 체험 인문과 영화 읽기로 ‘일상, 자금자극프젝트’와 ‘명하여 다시 한번!’이 진행된다.

수강료 조합원 1만원, 일반회원 2만원, 학생 무료.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010-4624-1201. 박성천기자 skypark@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12개
1층점포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월수익500만
매가6억7천
(보4천,용자1억5천)

원룸전문취급
원룸물건 다양임
(금액 4억~12억)

010-6670-9800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1.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사우나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8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2,000만 수익 발생(1년2억 4천)
매가 13억(보 2억, 용 5억)

2.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건평500평 월 수익 900만, 매가 10억	3. 북구 오룡동 8층 건물 1층 상가, 삼성전지 앞 보 2억, 용 15억 오피스텔 58개 월 수익 3,000만, 매가 35억
4. 북구 상가건물 3층 토지 160평/건물 200평 월 수익 1,200만, 매가 21억	5. 수완지구 상가건물 4층 (우미아파트 밑) 월 수익 900만, 매가 17억

(주)대신 010-6670-9800, 062-952-5584

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영산중고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2천
환인 - 2억8천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루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2채 50평
현 무화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환인 - 2억8천

010-6832-9700

경매 무료 교육

운암캠프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반

이제 경매가 대중화 시대
교육화 실현가능

062)523-4900

경매 무료 교육

상무지구 12월 1일

12월 1일 오픈(상무지구)

기본반
고급반
실전반

010-6670-9800
062)523-4900

오피스텔 매매 (수익상가)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6층 48평
올 리모델링 완비
천변쪽 방향 전망 좋음.
즉시 입주 가, 임대 가
보 1천, 월 70만 (용 5천)
48평 매가 1억 5천
환인 - 1억1천
- 서구 상무지구 수림오피스텔 6층 15평
내부시설 완비
임대 완료
보 300만, 월 33만
(용 1,300만)
15평 매가 5,000만
- 쌍촌동 원룸
운천역 1분
매가 3500만
-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정연 오피스텔 3층 32평
매가 1억1천만
(보1천, 월70만, 용5천만)

062)527-7600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780㎡, 건 1992㎡)
감정가 24억 최저가 13억
- 광주 서구 화정동 (토지 171㎡, 건 501㎡)
감정가 27억 최저가 19억
- 광주 서구 화정동 (토지 372㎡, 건 1255㎡)
감정가 10억 최저가 5억7천
- 광주 동구 동명동 (토지 838㎡, 건 2190㎡)
감정가 17억 최저가 11억
- 광주 서구 치평동 (토지 1599㎡, 건 17380㎡)
감정가 223억 최저가 156억
- 광주 남구 주월동 (토지 236㎡, 건 594㎡)
감정가 4억5천 최저가 4억5천

토지

-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지3974㎡)
감정가 45억 / 최저가 25억
(상업지역, 최고위치,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적합)
- 광주 북구 매무동 (토지 579㎡)
감정가 1억 / 최저가 5천 800

경매 같이 하실 분, 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952-5584